



전남 신안군 자은면 일대
육상풍력 발전단지

전남도, 해상풍력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신산업 생태계 구축

전남도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산업과가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다해 왔다. 그동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선도 사업 첫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에너지 정책 방향에 해상풍력사업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서는 신안 8.2GW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계획용량은 30GW 규모에 달하며 현재 단지별

로 사업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안 8.2GW 해상풍력사업은 2030년까지 10년간 민간투자 등 48조5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터빈, 블레이드, 타워, 하부구조물 등 핵심 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450개 연관기업을 유치·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 등 상시고용 6천 명을 비롯해 발전단지 개발, 부품 생산, 건설, 운송 등 직간접 일자리 12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상풍력을 통해 기존 지역산업을 대 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사업 진출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수소 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 개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남도가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 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❶



8.2GW 해상풍력 프로젝트 CG 이미지

미래 먹거리! 전남행복시대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남형 상생 일자리 8.2GW 해상풍력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발전수의 공유'

- 주민 이익 공유형 · 수산업 공존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

- 해상풍력 기자재 및 연관기업 450개사 유치·육성



'12만개 지역일자리' 창출

- 최첨단(AI, ICT 등) 전문직군 및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그린수소 전주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